

광주 2030년까지 미세먼지 16% 줄인다

‘청정 광주만들기’ 5개분야 32개 사업 6830억 투입

광주시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등 그동안 추진한 정부 정책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시민실천본부 가동, 미세먼지 측정·알림, 미세먼지 회파·대응,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 등 5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

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30년까지 2016년 기준으로 16% 감량(42 $\mu\text{g}/\text{m}^3$ →35 $\mu\text{g}/\text{m}^3$)할 계획이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30년까지 21% 감량(23 $\mu\text{g}/\text{m}^3$ →18 $\mu\text{g}/\text{m}^3$)하는 등 광주지역 대기질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검사·예보·조치 등 전 과정을 시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1월 이전에 ‘미세먼지 안전 시민

실천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실천본부에는 전문가, 환경단체, 시의회, 기업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국제기후환경센터와 함께 민간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미세먼지 SNS 홍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홍보 등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 용역을 2년에 걸쳐 시행해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 분석과 감축 정책에 활용한다.

이밖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7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도로변에 고정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클린 로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학교 운동장의 비산먼지를 줄이는 ‘먼지 억제제 살포사업’을 내년에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019년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566억원 편성하는 등 2022년까지 5개 분야 32개 사업에 6830억원(국비 46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광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 17개국 120개사 참여

국내 최초 e-모빌리티 전문 산업박람회인 ‘2018 영광 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가 11일 개막했다.

영광대산업단지 일원 엑스포 행사장에서 4일 동안 열리는 e-모빌리티 엑스포는 ‘즐거워! e-모빌리티, 누리라! eco-life’를 주제로 국내외의 17개국 120개사가 참여한다.

개막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종구 초당대 총장, 김경수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업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캐나다의 드니 테리엔(Denis Therien) 맥길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엘리먼트AI기업의 선택과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산업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e-모빌리티 기업,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선편’을 통해 전남도와 영광군이 e-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임을 대내외에 선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에는 e-모빌리티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국내외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실내외 시승 체험관에 마련된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 또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학생과 프로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드론 경주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 케이팝공연, 아이돌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해찬 대표, 이시종 충북지사, 이준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경제 어려운게 사실...일자리 조금씩 나아질 것”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이용섭시장, 현안사업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 참총음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최문순 참총음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11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문제는 서서히 좋아지고 서서히 나빠지고 하는데 현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10여년 동안 경제체질이 많이 약해졌기에

그것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꾸준히 노력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일자리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심히 노력해야 만들어지는데 제가 보기엔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일자리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텐데 시도지사께서 좀 더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일자리 만드는 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긴 했어도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에

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직이나 인사, 재정에서 분권을 대폭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지방분권화가 혁신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많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증액 등 추가 지원, 북한 선수단·응원단·공연단 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미술작품 기증자 제안·요청사항 면밀 심사

광주시 ‘기증 가이드라인’ 발표 기증자 예우 기준 훈령 제정

광주시는 11일 미술작품 기증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미술작품 기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기증을 포함한 기증자 제안과 요청 사항까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또 그동안 운영해온 미술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수집 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하는 ‘미술작품 수집(기증)심의회위원회’에 법률자문 변호인 일부를 추가 위촉하여 기증 절차의 적법성 심사를 강화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와함께 기증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증자 예우에 관한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예우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메세나 정신 홍보 ▲기증 수량에 따른 회원제 운영 ▲기증자의 밤 운영 ▲기증자 세제 혜택을 위한 기증품 감정 평가서 발급 등 12개 항목이다.

광주시 박항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보완된 기증작품 심사와 기증자 예우기준에 따라 지역 미술계에 보다 활발한 기증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美 웰컴연구소 손잡고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 선정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웰컴연구소와 손을 잡고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다.

광주시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 미국 웰컴연구소, (주)그린정보시스템, 조선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공가품질 실시간 감시-예측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웰컴연구소(Qualcomm Institute)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정보통신기술연구소(Calit2)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분석, 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 IOT 등 4차산업 및 ICT 분야 선진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다른 국가와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산업의 전략기술과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수요기술 개발과 글로벌 상용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 산·학·연과 해외 R&D파트너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광주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5억원, 민자 5억원)을 투입해 ▲IoT센서 통합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및 제작 ▲공기품질 빅데이터를 분석해 단기간 추이 예측 및 시각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개발 시제품 및 분석 플랫폼의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파일럿 사이트 구축 및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 미국 웰컴연구소와 11월1일 스마트시티 공동연구개발 추진 및 웰컴연구소 한국지사 광주 유치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24일 순천서 ‘디자인 잡 매칭데이’

전남도는 오는 24일 순천에서 열리는 ‘제5회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전’에서 ‘디자인 잡 매칭데이’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인 ‘디자인 잡 매칭데이’는 디자인 분야 자격과 능력을 가진 청년들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대상은 전남지역 디자인기업과 디자인분야 구직자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장에서 직접 면접을 하거나 바로 채용할 수 있다. 구직자는 이력서와 작품집을 접수하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디자인 인재 발굴과 취업을 위해 디자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 문의는 전남도 문화자원과(061-286-5353, 이메일 gimirun@korea.kr)로 하면 된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전에서는 전남 공공디자인 작품, 친환경패키지 디자인 및 친환경 해양디자인 작품 등이 전시된다.

22일에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가, 25일에는 ‘해양산업디자인,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다’를 주제로 ‘친환경산업디자인포럼’이 열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가을단풍 여행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가을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합니다

1. 정동진일출 · 설악산단풍 기차여행 · 무박 2일 10월 26일(금) **120,000원**
2. 제천 청풍호 · 도담삼봉 기차여행 · 당일 11월 03일(토) **85,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문경새재(옛길) · 월악산송계계곡 단풍여행 · 당일 10월 20일, 27일, 11월 3일 **95,000원**
2. 계룡산 갑사로 가는길 · 공산성 단풍여행 · 당일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11월 3일 **75,000원**
3. 남이섬 자유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4.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5. 서천 국립생태원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섬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홍도 · 흑산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2. 울릉도 · 독도 여행 · 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3. 거문도 · 백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4. 백령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85,000원~**
5. 대마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70,000원~**

버스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인제 자작나무숲&곰배령 트레킹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80,000원~**
2. 울산 동해미행 버스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3. 고령 고분군 트레킹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4. 통영 동피랑 마을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70,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